

- 서울예술단·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국립현대무용단 대표 프로그램 선보여
- 9월 13일부터 27일까지 박물관과 센트럴파크에서 무료로 진행

“박물관은 전시만 한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다. 박물관은 전시는 물론, 다양한 문화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이런 추세를 반영하는 대표적 박물관이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오는 9월 13일부터 27일까지 박물관과 센트럴파크 일대에서 국립예술단체와 함께하는 <국립시리즈> 문화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K-컬처 공연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서울예술단,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국립현대무용단이 참여해 뮤지컬(창작가무극), 클래식 오페라, 현대무용 등 장르별로 품격 있는 공연을 선보인다.

올해 처음 선보이는 <국립시리즈> 문화 행사는 지난 23년 10월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로컬100’에 박물관이 선정된 이후 약 2년간의 준비 과정을 통해 기획된 프로젝트다. 박물관은 국내·외 관광객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품격있는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에 앞장서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서울과 주요 대규모 공연장에만 집중되어 있던 국립예술단체의 공연을 박물관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첫 문은 서울예술단이 뮤지컬(창작가무극) 공연으로 연다. 9월 13일(토) 오후 3시 박물관 1층 로비에서는 서울예술단의 뮤지컬(창작가무극) 낭독

공연이 펼쳐진다. 국내 문학을 소재로 한 <운동주, 달을 쏘다.>와 <천 개의 파랑>을 갈라 콘서트 형식으로 재구성해 선보인다. 작품의 주요 구절 낭독과 극 중 대표곡 가창을 통해 문학과 공연의 경계를 넘는 감동적인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클래식 오페라 갈라 콘서트’

다음 바통은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가 받는다. 9월 21일(일) 오후 4시 센트럴파크 잔디광장에서는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클래식 오페라 공연이 펼쳐진다. 국내 최정상급 지휘자 정치용을 필두로 성악가 테너 이명현, 소프라노 권수지,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아카데미 60여 명이 함께하는 대규모 무대를 선사한다. 푸치니 대표작 <라 보엠(La Bohème)>, 차이코프스키 <예브게니 오네긴(Eugene Onegin)> 등 오페라 대표 명곡을 선보이며, 풀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선율과 두 성악가의 하모니로 센트럴파크 공원을 가득 채울 예정이다.

국립현대무용단 ‘정글’

피날레는 국립현대무용단이 장식한다. 9월 27일(토) 오후 7시 센트럴파크 잔디광장에서는 국립현대무용단 대표 작품 <정글>을 국내 최초로 야외에서 선보인다. 안무에는 김성용 단장 겸 예술감독이 직접 참여했으며, 음악감독에는 일본 사운드 아티스트 겸 작곡가 마리히코 하라가 함께해 공연의 몰입도를 더욱 높였다. 15인의 무용수가 표현하는 다양한 정글의 모습은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버텨내는 우리 현대인의 삶을 투영하고 있으며, 높은 빌딩 숲 가운데 자리한 센트럴파크 공원에서 언어와 문화를 초월한 무용수들의 역동적인 움직임이 관람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3회차로 진행될 이번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별도 예약 없이 누구나 관람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세계문자박물관 누리집(www.mow.or.kr)과 공식 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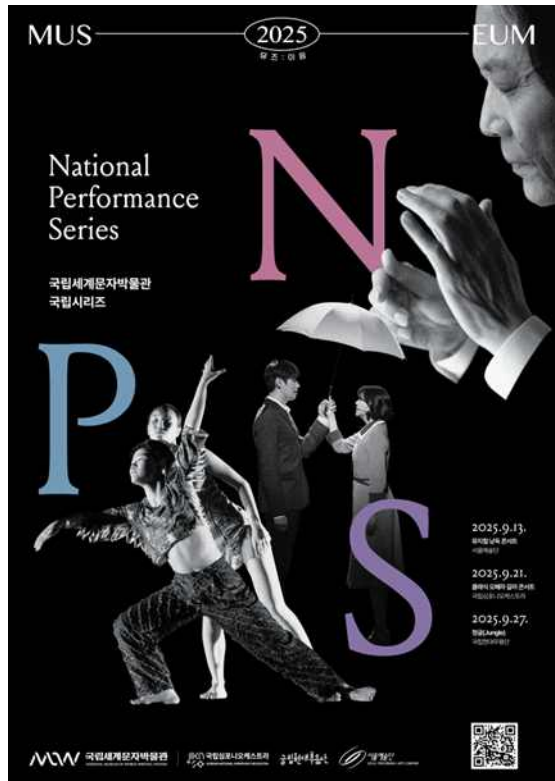
붙임 1. 행사 개요 1부.

2. 이미지 자료 1식(4장). 끝.

붙임 1**행사 개요**

- ☐ 행사명 : 2025년 국립세계문자박물관 문화행사 <국립시리즈>
- ☐ 기간 : 2025. 9. 13.(토) ~ 27.(토) *총 3회차
- ☐ 장소 : 박물관 1층 로비, 센트럴파크 잔디광장
- ☐ 관람료 : 무료
- ☐ 문의 : 홍보디자인부(032-290-2046/2081)
- ☐ 주요내용

회차	일시	장소	예술단체	내용
1	9.13.(토) 15:00	박물관 1층 로비	서울예술단	뮤지컬(창작가무극) 낭독 콘서트
2	9.21.(일) 16:00	센트럴파크 잔디광장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클래식 오페라 갈라 콘서트
3	9.27.(토) 19:00	센트럴파크 잔디광장	국립현대무용단	정글



[사진1] 행사 포스터



[사진2] 서울예술단 이미지



[사진3]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이미지



[사진4] 국립현대무용단 이미지